

점점 진화하는 디지털 놀이터… ‘주니버’는 추억속으로



‘슈의 라면가게’, ‘동물농장’ 등 플래시 게임과 동요·동화, 교실 안 인기 급상승 교육콘텐츠로 2000년대 초등학생의 온라인 세상을 풍요롭게 했던 ‘주니어네이버(주니버)’ 서비스가 27일 공식 종료됐다. 주니버는 불필요한 광고 차단 등 섬세한 안전설계와 맞춤형 교육·놀이 기능으로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에게 신뢰와 인기, 세대의 추억을 남겼다.

◇‘주니어네이버’, 26년간 추억에 마침표
1999년 6월 네이버와 함께 첫 선을 보인 국내 최초의 어린이 전용 포털 ‘주니버’는 동요, 동화, 영어 퀴즈 같은 교육 콘텐츠부터 플래시 게임, 캐릭터 놀이방, 안전한 검색 환경까지 폭넓게 제공하며 2000년대 초·중등생에게 ‘추억의 놀이터’로 자리 잡았다.
주니버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쉽고 재기발랄한 서비스로 야후구리기(2012)·다음 키즈장(2015) 등 당시 경쟁 어린이 포털이 사라진 뒤에 도 가장 오래 남아 세대를 이어왔다. 주니버를 통해 성장한 이들이 이제는 성인이 돼 ‘주니버 키즈 세대’라 불릴 만큼 국내 아동·청소년 인터넷 문화의 한 축을 담당했다.

2000년대 초등생 인기 플랫폼 주니어네이버 서비스 공식 종료
유튜브·OTT·VR·메타버스 등 키즈플랫폼, PC서 앱으로 이동

◇PC시대 어린이 플랫폼의 퇴장
주니버를 비롯한 기존 PC 웹 기반 포털들은 스마트폰·모바일·영상 환경으로의 전환을 겪고 있다. 2023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어린이 미디어 이용조사’에 따르면, 만 3~9세 아동의 96%가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콘텐츠 소비 플랫폼 역시 유튜브키즈·핑크키즈(카카오), 뽀로로TV·핑크퐁·틱톡·넷플릭스 키즈 등 글로벌·전문 동영상·OTT 앱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25 콘텐츠 소비 전망 보고서’에서는 2025년 주당 평균 콘텐츠 소비 시간이 전년대비 3.86% 늘어난 22.9시간인 데 반해 어린이·청소년의 월평균 콘텐츠 지출액은 1.55% 줄어든 2만9603원으로 집계돼, 플랫폼 다변화·무료 콘텐츠 시대 진입이 더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아이들은 어디로 갔나? 새로운 트렌드
아이들은 이제 플래시 게임, PC 기반 포털 대신 모바일 앱 기반의 유튜브·OTT, 코딩·AI 앱, AR/VR, 메타버스(로블록스·마인크래프트) 등을 즐긴다.
2024년 기준 학령기 아동의 87% 이상이 스마트폰을 1인 1대로 사용하고 영상·숏폼·커뮤니티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상화됐다. 영상 중심 소비와 더불어, 인기 유튜브·OTT·MCN(1인

미디어)·챗린지 등 알고리즘 추천·실시간 트렌드가 아이들의 취향을 바꿔놓고 있다.
최근 인기 앱은 유튜브 키즈, 핑크퐁, 브레드이발소, 뽀로로TV, 엘리하이(메가스터디 계열), 아이돌나라(LG유플러스), 넷플릭스 키즈, 틱톡 등이 꼽히며, 각종 챗린지·커뮤니티·과학체험 등도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콘텐츠 역시 친구, 가족, 인플루언서부터 알고리즘 추천 등으로 소비하며 프로슈머·참여형(직접 영상·이미지 제작, MCN 운영) 문화가 자리잡았다.

◇달라진 환경, 아이들의 디지털 놀이터 재구성
26년 만의 주니버 서비스 종료는 한 사이트의 폐쇄를 넘어 국내 미디어·IT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키즈 플랫폼은 단일 포털 중심이었던 PC 시절에서 이제는 AI 기반 개별 앱·OTT·코딩·체험형 놀이로 다원화됐고, 네이버 역시 주니버 종료 후 일부 교육콘텐츠(동요·역사송 등)는 네이버TV에 남기되 향후 네이버의 비영리 교육 기관인 커넥트재단에서 운영하는 SW교육·창작 플랫폼 ‘엔트리’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엔트리는 전국 초중등 교과서에 채택돼 교과 콘텐츠, 온라인 과제 제출, 학급별 스터디·커뮤니티 운영, 디지털 교과서 기술 제공 등 광범위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AI·디지털 교육·기술 분야의 경쟁은 네이버 뿐 아니라 카카오, 통신사 등 국내외 IT기업, 글로벌 버티컬 콘텐츠 서비스 전체로 확산 중이다. 차세대 어린이들의 디지털 놀이터는 단일 포털이 아닌 AI·코딩·창작·체험이 결합된 전문적·미래형 플랫폼 중심 경쟁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쫄쫄 IT 정보

KT ‘안심로밍’ 64개국으로 확대

KT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해외에서도 국내 통화료를 적용하는 ‘안심로밍’ 서비스 적용 국가를 기존 58개국에서 64개국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심로밍은 해외에서도 국내와 동일한 통화료(음성통화 1초당 1.98원)가 적용되는 서비스다. 별도 신청 없이 대상 국가에 방문하면 자동 적용된다.
KT는 안심로밍 적용 국가에 루마니아, 리히텐슈타인, 불가리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등 6개국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안심로밍 서비스 제공 국가는 총 64개국으로 늘었다. 전체 로밍 고객의 96%가 대상이다.
이 서비스는 고객 유심 정보와 단말기 정보를 연동해, 유심이 다른 기기에서 임의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한다. 26일 이전에 가입한 고객은 별도 신청하면 로밍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KT 고객센터, KT닷컴, 전국 KT 대리점에서 가능하다.

다음, 오리지널 숏드라마 공개

카카오 포털 다음은 최근 숏폼 서비스 ‘다음 루프’에 오리지널 숏드라마 콘텐츠 ‘숏드’를 새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매주 수요일 신작을 공개하고, 모든 작품의 전 화차는 무료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각 작품은 1~2분 내외의 30~60개 영상으로 구성되며, 전 화차를 동시 공개한다.
첫 번째 작품은 웹툰 원작 ‘귀신도 세탁이 되나요?’로, 배우 김향기가 숏드라마 첫 주연을 맡았다. 판타지 웹소설 원작 ‘하트브레이커 로밍’이 내주 공개된다.

갤럭시 S25 국내 판매 200만대

삼성전자는 연초 출시한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5 시리즈’가 지난 24일 기준 국내 200만 대 판매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작인 갤럭시 S24 시리즈보다 2주 이상 빠른 속도이자 역대 최단기간 달성한 성과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전작 대비 100만 대 판매 돌파 시점도 1주일가량 빨랐다.
삼성 갤럭시 S25 시리즈의 인기 요인으로 개입된 갤럭시 인공지능(AI), 향상된 카메라 기능 등을 꼽았다.
자체 분석 결과, 최고 인기 모델은 기본, 플러스, 울트라 모델 중 카메라 등 성능이 가장 우수하고 디자인 변화가 컸던 울트라 모델이다. 인기 색상은 대표 컬러인 블루 계열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화이트, 실버도 인기를 끌었다.
올해 1월 처음 선보인 ‘뉴 갤럭시 AI 구독클럽’도 10~30대 고객의 큰 반응을 얻으며 흥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삼성은 분석했다.

/연합뉴스

ENGLISH

생각하기 만들기 공유하기 커뮤니티

Q

로그인

교과서 실습하기

초등 교과서 그대로 수업을 진행해 보세요.

교과서 7

도움자료 수업 교안 & 활동지

엔트리봇

움직이고 말하는 프로그램

[P.66]절반 앞에서 친구들에게 인사하는 전학생 엔트리봇

물고 답하기 프로그램

[P.68]자리에 앉아 서로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엔트리봇과 학생

계산기 프로그램

[P.69]수학 시간에 계산 능력을 보여주는 엔트리봇과 놀리는 선생

네이버의 비영리 교육 기관인 커넥트재단에서 운영하는 SW교육·창작 플랫폼 ‘엔트리’

사람보다 나은 ‘AI챗봇’ 설득력

개인정보 제공받은 GPT-4, 온라인 토론회 사람보다 능력 앞서

인공지능(AI)이 생각을 바꾸도록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 챗GPT 같은 대형언어모델(LLM) 기반 AI 챗봇이 사람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토론 능력을 이미 갖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위스 로잔 연방 공대(EPFL) 프란체스코 셀비 박사팀은 20일 과학 저널 네이처 인간 행동(Nature Human Behaviour)에서 GPT-4와 사람 간 온라인 토론 실험 결과 성별·인종·학력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GPT-4가 토론 중 64%에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설득력을 보였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결과를 GPT-4가 간단한 개인 정보만으로 상대 설득을 위한 맞춤형 주장을 생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을 잘못된 주장을 확산하거나 설득하는 데 AI가 악용될 경

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사람과 LLM 간 대화가 일반화하면서 LLM이 사람들의 믿음이나 의견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설득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연구팀은 그러나 AI 모델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특정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맞춤형 주장을 생성하도록 적용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미국의 실험 참가자 900명을 사람 대 사람, 사람 대 GPT-4로 짝 지은 다음 다양한 조건에서 화석연료 금지 같은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해 온라인 토론을 하게 하고 각각이 내놓은 주장의 설득력을 평가하는 실험을 했다.

/연합뉴스

국립광주과학관, 조류 충돌 방지 필름 부착 생물다양성 보존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지난 22일 본관 정문 필로티 공간 유리면에 조류 충돌 방지 필름을 설치해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사진〉**
이번 조치는 야생조류의 유리창 충돌로 인한 폐사를 예방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국가 공공기관으로서 생명 존중과 생태 감수성 제고라는 사회적 가

치와 책무를 적극 실현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립광주과학관 이정구 관장은 “생명 존중을 먼저 실천하는 이러한 준비 과정은 생태적 가치 실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향후 과학관이 이들의 생물과 지구 환경에 관한 관심과 책임 의식을 키우는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탁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